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8일 수요일 음 12월 9일 (1물)

건강&생활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 낮 최고기온은 10-11℃로 예상된다. 산지에 최대 20cm의 적설이 예상되니 산행 및 차량운행에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자외선지수 낮음 산불가능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눈 2/4℃ 모레 흐리고 비/눈 2/6℃

월드뉴스

‘동남아 최대 경제국’ 인니, 브릭스 합류

‘반 트럼프’ 구도 형성 관심

중국·러시아 주도 신흥 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BRICS)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최대 규모 경제국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가 합류했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에서 손잡은 브라질 대통령(왼쪽)과 인니 프라보워 대통령. 연합뉴스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부는 6일(현지시간)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인니가 오늘 브릭스 정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브릭스 정회원국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10개 국으로 늘었다.

브릭스라는 명칭은 최초 5개 정회원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영문 앞글자만 따서



신 윤 경 불경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흔란스럽고 위태로운 시국과 느닷 없는 참사로 새해인 듯 새해 아닌 나날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의 이 기막힌 상황은 그간 우리 사회에 누적돼 온 병폐와 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하다.

많은 이들이 부와 권력을 좇는다. 이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께 사는 세상이다 보니 누군가의 ‘마음대로’는 다른 누군가의 불편과 억울함을 낳게 된다.

생명의 양식

래서 인간 사회는 양심이라는 윤리와 제도화된 법을 통해 ‘내 마음대로’를 제한한다. 인간의 역사는 어찌 보면 부와 권력을 가진 이들의 ‘마음대로’에 의해 그렇게 된 이들이 받게 되는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간 사회는 집단주의에서 각자도생의 개인주의를 거쳐 연대하는 개인의 문화로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의 표준에 맞추던 사회에서 다양한 기준이 인정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세상에는 언제나 상반되는 힘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은 변해 간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약육강식 대 약자 보호’, ‘각자도생 대 연대’, ‘표준 대 기준의 다양화’, ‘물질주의 대 전체론(Holism)’, ‘혐오와 차별 대 존중과 환대’, ‘반생명 대 생명’의 힘들이 불꽃을 튀기며 충돌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은 타자와 주고받는 관심과 애정을 기반으로 한다. 누군

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와 생명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명을 북돋는다. 부와 권력을 쫓을 때에도 그 최종 목적은 충만한 생명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다.

이제껏 유구한 인류 역사의 흐름이 그러했듯,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우리는 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서로 연대하며, 기준을 다양화하는, 전체로서 살아가고, 타자를 존중·환대하며, 서로 생명을 북돋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열린마당

민생(民生)과 도민생각



이 정 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세계경제를 ‘3고(高)시대’라 한다.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이 그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민생은 ‘1고(高)2저(低)’의 시대라 부르고 싶다.

게다가 작년 말부터 대한민국이 다사다난하다. 역시나 민생경제는 어렵고 회복의 바람은 찬바람이다. 제주도의 정신적 지주산업인 1차 산업은 기후 위기로 예측할 수 없다.

극심하다. 밭고도 어려운 길이다. 생명산업인 관광도 마찬가지다. 관광트렌드의 변화속도가 극심하다. 그만큼 입도관광객 수는 늘었다 줄었다 한다.

이토록 어려운 여건의 제주도에서 제주도의회 의원으로서 어떠한 책임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할까? 세종대왕이 즉위 첫날 문무관료를 전부 소집해 중앙에 섰다. 22살 국왕의 첫마디가 뭐였을까? ‘동의(同義)’, 지금 말로 풀어보면 ‘함께 의논합시다’였다.

AI기술이 반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양 현 진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본부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AI) 기반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이런 AI기반 기술들은 해당 분야를 더욱 혁신적으로 탐험을 시키고 있으며 이는 여러 공공시설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 최대 규모인 제주하수처리장에 대하여 AI기반 처리시설 설비 운영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절감과 유지보수의 사전 예측을 통한 시설 기능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모형을 확보한다. 그리고 자동 운전·제어를 위한 공정최적화 기반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관리체계가 적용된 선진화된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년 365일 쉬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자의 경험에만 의존한 운영으로 자칫 비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쉽게 된다. 이로 인한 전기 사용과 유지관리비 등의 증가는 전반적인 시설 운영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한리일보 제주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씨니트묘목분양. 씨니트 - 카리향 2년 - 달콤 - 미래향 - 감평 - 한라봉 2년.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한라종묘.

2025년 예약 주문 받습니다. 미래향,우리향,사라향,달콤미. 신비향,수라향,설국향,궁천 5년생,홍미향(화분). 서귀종묘.

감귤묘목. 고품질 교수의 그린향(유리실생)!! 대규모 하우스 단지 견학환영. 석파농산.